



오늘의 말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_ 예레미야 29:11-1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5 | 청년부 추수감사절 사역후기 | 8 | 아름다운부모학교 / 세례소감 |
| 3 | 신앙사경회 말씀 요약 | 6 | 봉사부, 신박한 발명의 역사 | 9 | 겨자씨이야기 / 교사일기 |
| 4 | 한국장로교회와 장로교 신학 | 7 | 부모기도회 / 베아투스 / 어와나 | 10-11 | 교회사용설명서 / 십자말풀이 |



성경, 최초의 선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사경회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 각성과 생활 쇄신을 도모하는 집회’라고 정의되어 있으면서 초기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정식으로 입국하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먼저 번역되고 보급되어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판매하고 보급하던 활동을 맡았던 권서는 성경 보급과 말씀 전파를 통해 한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국문공부 운동이 일어나 사경회라는 이름의 성경공부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선교사와 그 부인들, 그리고 한국인 장로들과 권서들이 주로 사경회를 인도했으나, 뒷날에는 주로 한국인 지도자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사경회를 겸했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개최된 사경회에는 압록강가에서 자매들이 몇백리길을 걸어와 참여했고, 이듬해 평양에서 열린 ‘사나이 사경회’에는 전라도의 목포 지방에서 참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까지 업고 왔는데 손에는 손때묻고 닳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경회의 목적은 정의에 있듯이 영적 각성과 생활 쇄신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공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도 되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뜨겁게 되어 삶으로,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⑥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깊고 넓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사명을 가지고 구속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함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로 행동하셨으며, 출애굽 사건 자체가 구속행위로 불린다. 출애굽 구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한 성경신학의 주요 주제이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받은 이들은 구속에 대한 응답으로 구속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관의 규모와 범위를 알기 위해 출애굽 사건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교와 하나님의 구속이 연결되어 있다면, 구속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애굽은 애굽의 정치적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땅과 함께 이스라엘 내에서 경제적 억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된 경제적 제도도 함께 주어졌다. 하나님은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적 억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너졌던 것을 사회적 정의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순히 그들이 속박 상태의 몇몇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곧, **출애굽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언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구속은 세상 속에서 그분의 관심사와 목적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신약은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출애굽의 렌즈를 통해 제시한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구속의 절정인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창조세계를 노예로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죄 사함인 면서 또한 우리가 고대하는 미래의 완전한 해방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역사적 구출 사역으로서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모든 창조세계의 최종적 구속을 고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에 반응하다.

출애굽 구출에 대한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기뻐서 노래를 외쳐 부르는 것이다. 구속을 기뻐함이 스포츠 경기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서서히 잦아들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개인적 생활습관이 되어야 했으며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뿌리박혀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는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 계속 현실화되었다. 구속을 기뻐하는 것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적이고 또한 명령으로 부과된 의무였다. 선택 가능한 감정적 즐거움이기보다는 되풀이해서 강조된 공동체의 책임이자 혜택이었다. 찬양과 실천은 모두 선교적 행위들이며, 둘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응답하여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들이다.

출애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실천의 모델이 된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의 선교 중 일부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구속한 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십계명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은 6년 동안 방사한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즉,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풀려난 노예들을 관대하게 대하라는 명령이 있다. **구속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당시 그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구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이들, 특히 우리에게 빚을 진 이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처신해야 한다. 구속의 경험은 구속적 삶을 낳아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선교적인 흐름을 만든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이와 같이 강력한 실천적 차원을 지닌다.**

사명을 띠고 구속적 삶을 살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은 세상에서 구속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총체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가 관여하는 선교의 모든 차원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십자가는 출애굽의 성취로 본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적 업적은 인류와 창조세계를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최종적 해방을 포함한다.

요약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든 형태의 억압과 노예 상태로부터 모든 창조세계와 인류의 궁극적인 해방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구속적 삶을 사는 것, 곧 잔임함, 착취, 탐욕의 세상 가운데서 동정, 정의, 관대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이다. 그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정치적 부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억압, 영적 속박이 있는 곳에서,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훈과 정의를 공유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규정하는 방식은, 출애굽과 회년의 언어, 희망을 재구성했던 예언자들에 의지해 자신의 선교를 규정하신 예수님의 방식과 얼마나 닮았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20)

교회창립35주년
전교인신앙사경회 첫째날

도전적 신앙

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11월 14일(화)과 15일(수) 양일간 이찬수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전교인 신앙사경회가 열렸다. 이틀간 진행된 사경회의 말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함께함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풍랑 한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살려달라는 말 대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주하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도전을 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만난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후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도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무기력한 독일 교회야말로 신이 죽었다는 증거이고, 신의 무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험기로 뛰어든 게 아니라 간청했고 응답을 받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에서 지켜 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스티븐 호킹박사가 몸을 가누지 못하였지만 그를 비참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중증 루게릭 환자일 수 있지만 한국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인생, 그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창립35주년
전교인신앙사경회 둘째날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의 어리석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그러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러나’입니다. 요나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불순종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까?

첫 번째는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을 때입니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는 앗수르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에게 앗수르는 원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할 때입니다.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너무 똑똑해서입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이 많아서 불순종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작심하고 하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뒤에 붙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저절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불순종하는데 일이 왜 잘 풀리느냐**입니다. 다시스로 가려는데 불규칙하게 오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선 대박입니다. 배에 탄 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현상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요나의 타락을 부추기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요나서 1장은 두 ‘그러나’의 대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입니다. 4절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이것은 불순종하는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를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를 이겨보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에 순복하길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공보
총회 창립 110주년
기획 칼럼

한국장로교회와 장로교 신학

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총회 창립 110주년이었던 2022년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 기획특집으로 실렸던 한국장로교회와 장로교 신학에 대한 글을 전재합니다. 주님의교회 창립 이전에 한국기독교와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글함글**

올해(2022년)는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이다. 한국장로교회 사상의 핵심인 장로교 신학은 어떤 것일까? 종교개혁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주류 종교개혁, 과격한 종교개혁(재세례파 전통), 반종교개혁(가톨릭 개혁) 등. 주류 종교개혁은 다시 루터교와 개혁교회로 나뉘는데, 개혁교회는 스위스 종교개혁이 그 기원이다. 개혁교회 초기 대표적 개혁가는 츠빙글리와 칼뱅으로, 개혁교회나 개혁신학을 칼뱅주의(Calvi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혁교회는 유럽대륙과 영미권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 개혁교회와 영미권 장로교회로 양분됐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유럽과 영미권을 망라한 개혁교회(광의) 혹은 유럽 개혁교회(협의)를 가리킨다. 유럽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 유럽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치리회를 강조하는 대의제를 택하지만, 전자 중 일부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감독제를 채택했다. 신조에 있어서, 유럽 개혁교회는 ‘일치 삼 신조’(Three Forms of Unity) 곧 벨기에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본이고,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알곤투운명을 겪었는데, 원래 영국 성공회가 장로제를 교회 정치체제로 채택하려고 마련했다가, 감독제를 채택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스코틀랜드[장로]교회가 이것을 수용했다. 어떤 의미에서 장로교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재해석 과정이다.

이후 유럽에서 미국을 향해 이민이 시작되자, 유럽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모두 미국에 공존하였고, 그 결과 더욱 복잡한 양상이 벌어졌다. 가령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도 개혁교회 신학교인 뉴브린스워신학교 출신인데, 막상 개혁교회가 파송할 수 없자 대신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한편 대한장로회신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전신)를 세운 마펫은 스코틀랜드 이민자 후손이자 장로교인으로, 장로교 정체성이 강했다. 한국장로교회는 대다수 선교사가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라서, 장로교 신학의 영향이 강했다. 특히 미북장로교회 프린스턴신학교의 구(舊)프린스턴 신학이 힘을 발휘했는데, 이 신학은 성서론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신학이었다. 그런데 한국에는 경전을 중시하고 창작보다 기존 내용을 수용하는 ‘술이부작’(述而不作)

적 전통이 있어서, 이런 신학이 어렵지 않게 수용됐다.

한편 신생 교단인 한국장로교회는 첫 번째 신조로 비교적 내용이 간략한 ‘12신조’를 채택했다. 이것은 인도장로교회 신조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선교사들이 아시아의 장로교회 간에 연합과 일치를 위해 마련했다. 따라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선교지 상황에서 마련된 12신조와 장로교회 전통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양축으로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신학 갈등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소급돼 해결되곤 했다.

한국장로교회의 경우, 해방 이전에는 주로 장로교 신학이 소개됐다가, 해방 이후에는 유럽 개혁신학도 소개되기 시작했다. 후자를 소개한 통로는 주로 고신측이었다. 한국장로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면서, 장로교 신학은 공통적으로 수용하지만, 유럽 개혁신학 특히 사회적 지향성이 강한 유럽 개혁신학은 교파마다 수용에 있어서 편차를 보였다.

한국장로교회는 세계장로교회의 신학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표방하거나 독특한 신학을 발전시켜 왔다. 가령 구프린스턴신학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용하는가 하면, 미국[연합]장로교회가 1967년 바르트의 화해론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내놓자 타 교단의 신조인데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민중신학 같은 한국적 신학 구성에 참여하여 세계교회와 교류하기도 했다. 한국장로교회는 장차 세계장로교회를 필두로 한 세계교회와 교류하면서, 전통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신학을 제시해 공유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교성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스위스 제네바 파르크 데 바스찬의 '종교개혁 벽'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성경봉독할 때 잘못 쓰는 말

몇 장 몇 절로 몇 절 말씀

성경봉독을 인도할 때는 “몇 절에서 몇 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몇 절로 몇 절까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표현일까요? 글에는 나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구어로만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로부터’라고 해야 하는데 줄여서 ‘...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법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데 쓰이고 있는 말로 바로잡아야 할 표현입니다.

성경을 받들어 봉독

‘봉독’이라는 말 자체에 ‘받들어 읽음’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거룩한

성일’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중첩되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서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지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봉독해주시겠습니까”라는 말도 하면 안됩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이복규, 새물결플러스) 참고

청년부
추수감사절 사역 후기

추억, 그리고 기대로 두근거리는 가슴

10월 15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수감사절 행사인 ‘Thanks Giving’ 행사에 스텝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뒤늦게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어색함이 조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스텝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긴장도 풀리고 함께 웃으며 행사를 참여해 나가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행사의 스텝으로 섬기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잊어버리고 있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었다.

아동부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께 공과 공부를 하던 것, 찬양울동팀을 맡아 울동을 하나하나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리고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서는 강습회에서 울동을 가르치기도 하며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가리지 않고 여름성경학교 또는 수련회가 있으면 망설임없이 스텝으로 섬겼던, 잊고 있었던 지난 추억들을 이번에 다시 추억하게 되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힘들고,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스텝들과 캠프 또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달란트이며 큰 행운인지 코로나로 인한 지난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 로비에서 청년들과 교역자들 함께 하였던 영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의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에서 등록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구민 목사님, 이충만 목사님, 조수희 전도사님 그리고 김세연 전도사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부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윤희정 청년 / 청년부



청년부
추수감사절 사역 후기

하나됨으로 함께

이번 ‘Thanks Giving’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기획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잊지 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온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길 바라며 기획하였습니다.

여러 성도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개인의 다짐들을 적어놓으신 사진들과 문구들을 보며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함께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한 뒤 개인적인 일정으로 한 달간 자리를 비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준 팀원들이 있어 함

께 해주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획이 현실화될 수 있었고, 교역자님들의 도움을 통해 구체화하고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넓은 교회의 공간들을 셋팅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인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없었다면 함께 이 기획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이, 가정, 국가,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통해 선교하셨고, 선교사님들도 이름이 적히지 않은 여러 대한민국 선조들과 국가의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Thanks Giving’을 넘어 ‘Together Giving’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경태 청년 / 청년부

봉사부, 신박한 발명의 역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교회 로비에 다시 음료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음료가 제공되는 탁자 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글함글이 그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은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이제 간단히 그 변화의 역사와 의미를 정리합니다.

변화의 시작, 코로나19 방역 해제

로비의 음료 제공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믹스커피와 등글레차를 담은 스테인레스 재질 대형 온수통과 플라스틱 컵을 비치했습니다. 마신 컵을 담는 커다란 통을 옆에 두어 담도록 했습니다. 주일마다 수천 명의 교인이 이곳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투명 인간처럼 소리없이 봉사부의 여러 분들이 온수통을 채우고, 플라스틱 컵을 쌓고, 다 마신 플라스틱 컵을 씻었습니다. 컵에 뜨거운 커피나 차를 받는 동안, 때로 컵이 흔들려 손을 데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되자, 감염 방지를 위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음료 제공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도 중단되었고, 음료 제공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부 설동춘 집사가 음료 제공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네 가지 과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방역을 위한 장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차를 기대하는 교인이 많다, 넷째, 뜨거운 물에 손을 데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으며, 서로 모순되는 요구였습니다. 최우선으로 교인 사이의 방역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열 온수통을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제공하며, 믹스커피와 함께 여러 종류의 티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열 온수통에서 뜨거운 물을 받을 때 손을 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온수통 꼭지 아래에 컵을 받칠 수 있는 틀을 부착했습니다. 즉 종이컵을 놓고 물을 따른 후 컵을 들고 가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도 챙겨야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환경 보호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용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데 착안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 사이즈와 텀블러 사이즈가 서로 다릅니다.



안전을 위한 컵받침

신박한 발명품 하나, 회전 컵받침

의류 디자인이 본업인 설동춘 집사의 머릿속이 바빠졌고, 곧 신박한 발명품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컵 받침대를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이컵을 받칠 때에는 꼭지 아래 놓고, 텀블러에 온수를 받을 때에는 컵받

침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배관을 다시 설계하고, 플라스틱으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이런 고민과 발명의 과정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0월 들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회전 컵받침

아메리카노용 튜브

신박한 발명품 둘, 아메리카노용 튜브

그 사이에 또 다른 신박한 발명품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믹스커피는, 굳이 종류를 설명하자면 시럽을 넣은 카페라테입니다. 깔끔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메리카노는 개인마다 농도의 취향이 다릅니다. 동결건조 커피분말을 병에 담아 놓으면 스푼이 필요한데, 개인 방역을 위해서는 되도록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푼에 커피를 담아 옮기는 사이에 흘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사부 부장 오세원 안수집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발명’했습니다. 소스용 튜브에 커피분말을 넣고 꼭지를 비스듬히 잘랐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만큼 튜브를 누르면 분말의 분량이 조절되도록 했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이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꼭지 구멍의 각도와 크기를 맞추기 위해 수십 개의 튜브가 희생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지금 텀블러를!

지금 로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신박한 발명품들을 봅시다. 사소해 보이는 이 장치에, 지금도 결레를 들고 바닥을 훑치는 봉사부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 보호 시대에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을 탓하는 교인들도 계십니다. 텀블러를 갖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컵받침 돌리고 온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_고린도후서 5:17

수험생을 위한 부모기도회

주의 손이 붙드시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속에서 수험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밝은 미래를 그리며 펼쳐질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불안함과 떨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수험생들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험생을 위한 부모기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주의 손이 붙드시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수험생 자녀들의 삶의 주인되시고 인도자게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수능을 잘 치르고, 입시의 모든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10월 21일(토)을 첫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1주차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자녀

세대의 현실)라는 제목으로 임경순 목사(청소년숲)가, 2주차는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부모세대의 현실)라는 제목으로 한시영 목사(가정사역원)가, 3주차는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선택과 결단)라는 제목으로 정구민 목사(청년부)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4주는 자녀축복 새벽기도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김화수 담임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심는 부모’(갈 6:7-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며, 수험생을 위해 온 교회와 교우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른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주신 부모님과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점수와 결과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험생과 수험생의 가정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계원 전도사 / 청소년숲 고등부

베아투스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공연 후기

예수는 나의 기쁨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가 테너로 있는 서울베아투스합창단이 2023.11.2에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베아투스합창단은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산하 ‘교회음악아카데미’부설 합창단으로서 지성과 영성과 음악성이 탁월한 박치용 이사장의 지휘 아래에 매주 1~2회 재단본부 연습실에 모여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제15회 정기연주회로 “예수는 나의 기쁨”(Jesu meine Freude)이라는 주제로 바로크 교회음악의 정수인 북스테후데의 칸타타 “예수는 나의 기쁨”과 페르골레지의 “마그니피캣” 그리고 비발디의 “사도신경”을 전반부에 연주하고 후반부에는 아름다움 바흐의 선율에 명시(윤동주의 서시 및 김소월의 진달래꽃)가 조화를 이룬 곡들, 우리의 정서를 대변하는 한국가곡들(나운영 가려나, 김성태 추억, 김동진 내 마음)에다가 임금수님이 편곡한 찬송가(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찬양하여라)를 연주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 1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에 7년 전 지휘자로 부임한 민태경 지휘자의 권유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음치라 불릴 정도로 소질이 없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 마치 고교시절로 돌아간 학생마냥 재미있었던 공부 삼아서 열심히 음악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에 매진하던 중 어느 날 뜬금없이 제 목소리가 기독교 합창에 최적화된 타고난 발성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제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주옥같은 선물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지휘자의 극찬이 사실로 믿어져 음

악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요?” 찬양공동체 안에서 영성과 음악성의 발전은 물론이요 주중에 쌓인 일상의 스트레스를 성가합창으로 날리는 일거양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기연주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몸에 배인 선율과 가슴 깊이 새겨진 찬송가 가사가 어우러지면, 내 마음은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옥토 밭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지영민, 김인숙, 신재숙, 고유자, 네 분의 권사님과 새벽예배에 찬양을 불러주시는 모테트합창단원이신 1부 솔리스트 이소현 집사님까지 주님의교회에서 모두 6명이 참석하여 연주회를 더욱 은혜롭고 빛나게 하였습니다.

이효두 안수집사 / 호산나찬양대

어와나

교사영성수련회

복음, 세대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한국 어와나 교사영성수련회가 10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평창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어와나 교사영성수련회는 약 1,000명의 어와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교사로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말씀을 주제성구로 하여 ‘복음, 세대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성수련회에서는 김영삼목사님(성남금광교회 담임, 한국 어와나 이사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뉴원워십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빅콰이

어팀이 찬양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번 영성수련회에서는 중등과정인 트렉의 송숙정 디렉터가 10년 봉사 시상을 받았다.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5~6세 커비스부터 고등과정인 저니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오고 있다.

함줄함울



가정사역원
아름다운 부모학교

갈림길에서 만난 이정표, 부모학교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만큼 오래도록 고민스러운 일은 없었다. 특히 첫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서자 여러 매체와 주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대로라면 두 마을의 힘을 빌려도 모자랄 판인데 나는 자꾸 갈래 길 한 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각종 로드맵이 이 길을 따르라고 손짓을 한다. 이미 그 길을 저만치 앞서간 옆집 엄마는 확신에 가득 차 보이니까 지 한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자꾸 물음이 생긴다. 진짜 이 길이 맞나?

많은 고민을 품고 참여하게 된 ‘아름다운 부모학교’의 첫 시간에는 같은 고민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과, 그 고민을 미리 거쳐 앞선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반가움과 안도감이 들었다. 얼마 전까지 해외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 ‘부모학교 신청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기독교인과 학부모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때는 무관심이 미덕인 양 뒤로 한걸음 물러서다 이내 불안이 차오르면 옆집 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보 물색에 여념이 없는 열혈 학부모가 되었다가를 반복했다. 내 안에 ‘기독교학부모’로서 정체성이 부재했던 것이다. 신앙과 교육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육의 목적이 입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갈림길에서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더불어 학교 교육, 신앙 교육뿐 아니라 신체, 정서, 관계적 차원을 포함한 전인적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대학 때 훑고 지나갔던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책을 다시금 곱씹고 있다.

부모학교 과정을 마치며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아이를 위한 기도는 늘 해왔지만, 아이의 친구들, 선생님을 놓고 기도를 하진 못했었다. 앞으로는 아이와 아이의 주변(학급, 학교),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 주체로서 공동체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려 한다. 학부모 간담회든, 위원회든, 봉사하는 자리이든 눈감고 귀 닫았던 생활에서 벗어나 기독교학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마지막 입시경쟁 속에서 물음 없이 앞으로 달려가기만 했던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번거롭기도, 조금은 두렵기도 한 길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가보려고 한다. 사교육이 제시하는 로드맵이 아니라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찾기 위해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보려고 한다.

부모학교 회차를 거듭할수록 누군가 헤매던 나의 손을 잡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마지막 강의에서 부모학교를 마쳤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난다. 여러 갈림길 중에 이 길이라며 친절히 안내받았으니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몫일 터. 이 길 끝에서 나의 자녀들이, 부모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나아가 그들의 친구들이 중심이 단단한 아이들로 자라서 주변을 밝히고 어쩐지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서 있기를 기대한다.

이수영 성도 / 3교구



세례
소감

하나님의 계획따라 한걸음씩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독실한 어머니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보단 어머니의 신앙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중학생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숙형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하며 저의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밤늦게 자습이 끝나고 동아리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여름방학의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울기도 하였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직접적인 계기는 기독교 동아리에서의 여러 활동들이었지만 그에 앞서 제 어머니께서 꾸준히 여러 기도회를 가시면서 제 신앙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이 쌓여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양육하신 어머니 덕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알게(깨닫게) 된 것

세례교육을 받으며 기독교에 여러 종파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종교에서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받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함께 배우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은 같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을 믿는가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참된 진리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세례 전후 신앙과 믿음의 변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 기도가 무엇인지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서 각각의 의미가 재정립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아 제대로 말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 삶에 임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에게 감사했고 받았던 이 사랑을 나눠 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뜻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내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비록 가는 길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선택하신 주님을 믿으며 좁지만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현준 청년 / 청년부

겨자씨이야기
8교구

믿음의 삼겹줄, 은혜겨자씨

저희 겨자씨는 여느 겨자씨와 다르게 자매님들로만 구성된 독특한 겨자씨입니다. 남편분들께서 신앙이 없으시거나 약하신 분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하는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참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참 뜨거운 열정 가득한 겨자씨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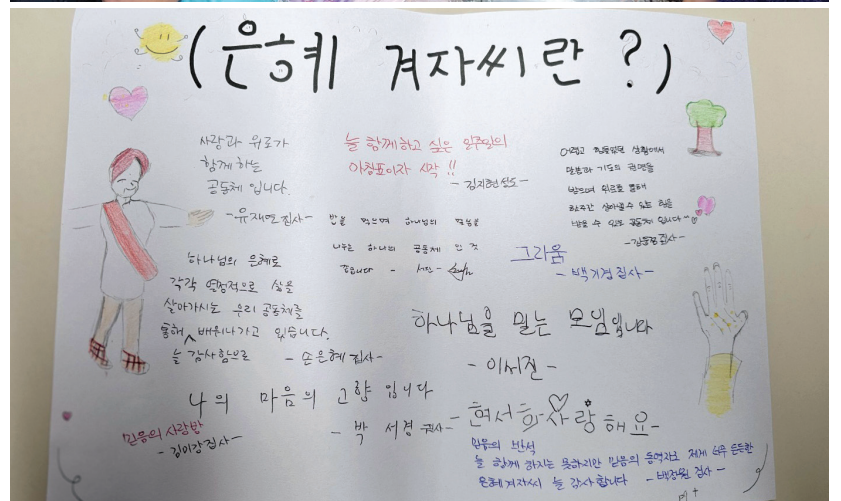
멘토리더로 섬겨주시는 박서경 권사님은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늘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과 용기를 쏟아 부어주시며 저희 자녀들에게는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며 늘 준비해오시는 간식을 먹이시고 손에 쥐어 주십니다. 권사님의 귀한 섬김과 사랑 속에 저희 집사님들도 헌신에 자리에서 봉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저희 공통된 1순위 기도제목은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구합니다. 각각의 가정의 개인사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길,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워지길 간절한 맘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낙심도 될 때도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며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은혜겨자씨는 믿음의 삼겹줄입니다. 서로서로 믿음의 손을 잡으며 믿음의 한울타리를 만듭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공동체~~~

늘 은혜겨자씨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영재 집사 / 8교구

교사일기
어와나 커비스

어와나 커비스와 함께

토요일 오후. 어와나 5~6세 클럽인 커비스 활동이 끝나고 모든 아이들의 귀가까지 챙겨주고 나면 커비스 교사들은 모두 자리에 주저앉아서 믹스커피 한 잔씩을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 설교말씀, 기도의 예배시간과 각 반 아이들과 한 명씩 그 주의 성경말씀 암송 확인, 말씀과 연계된 만들기 활동 그리고 대근육을 활용한 게임 시간까지 마치고 나면 교사들의 체력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곤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이기도 하지만 교사로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커비스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석 같은 자녀들의 소중한 유아 시기를 함께하는 기쁨과 성장을 지켜보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체력과 여러 일정들을 뒤로 하고 토요일마다 달려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0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커비스 활동을 마친 후 주님의교회 어와나 20주년을 기념하여 OB와 현역 교사들이 모두 모이는 홈커밍데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 선배님 교사들이시지만 마치 천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는 듯한 환한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의 OB 선생님들을 보면서 비록 커비스 4년차 교사이지만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그 가정까지 도우시고 또한 그 사랑의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르치시던 학생들이 이제 어와나 교사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너무 기뻐하고 대견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성장과 세대를 이어주는 감동과 섬겨주심의 감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각 클럽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점심을 즐긴 이후에 진행된 클럽별 교사 소개 시간과 곧바로 이어진 게임 시간을 통해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시고 유쾌하게 즐기시는 모습 속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버지는 꿈을 꾸리라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인한 생동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참 푸르다는 생각이 들며 나도 그런 푸른 나무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와나에서 암송한 말씀들이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 명료한 지침을 주거나 위로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와나 커비스에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성경의 교훈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아들딸로 함께 자라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큰 선물임을 느끼며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까지 함께 기도하며 꿈꾸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미선 집사 / 어와나 커비스



교회사용설명서③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안내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는 주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입니다. 모두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교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인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못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새로 오신 분들은 반갑게 맞아 주는 사람들이 없어 의아하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너무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 처음 오셨으면,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교인 등록 신청서를 쓰세요. 주님의교회 홈페이지(<http://www.pcltv.org>)의 맨 위 ‘처음오셨어요’에서 ‘새가족 등록’을 선택한 다음 ‘온라인 등록하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마치시면 새가족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등록 후 안내에 따

라 4주 동안, 매주일 한 시간씩 4차례의 새가족 양육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의교회에 대한 안내와 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새가족 양육 과정을 마치면 주님의교회 정식 교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예요!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의교회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 봉사도, 주방 봉사도 하나님 일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 스스로 찾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비에 놓인 차를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드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발한 발명품을 고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스스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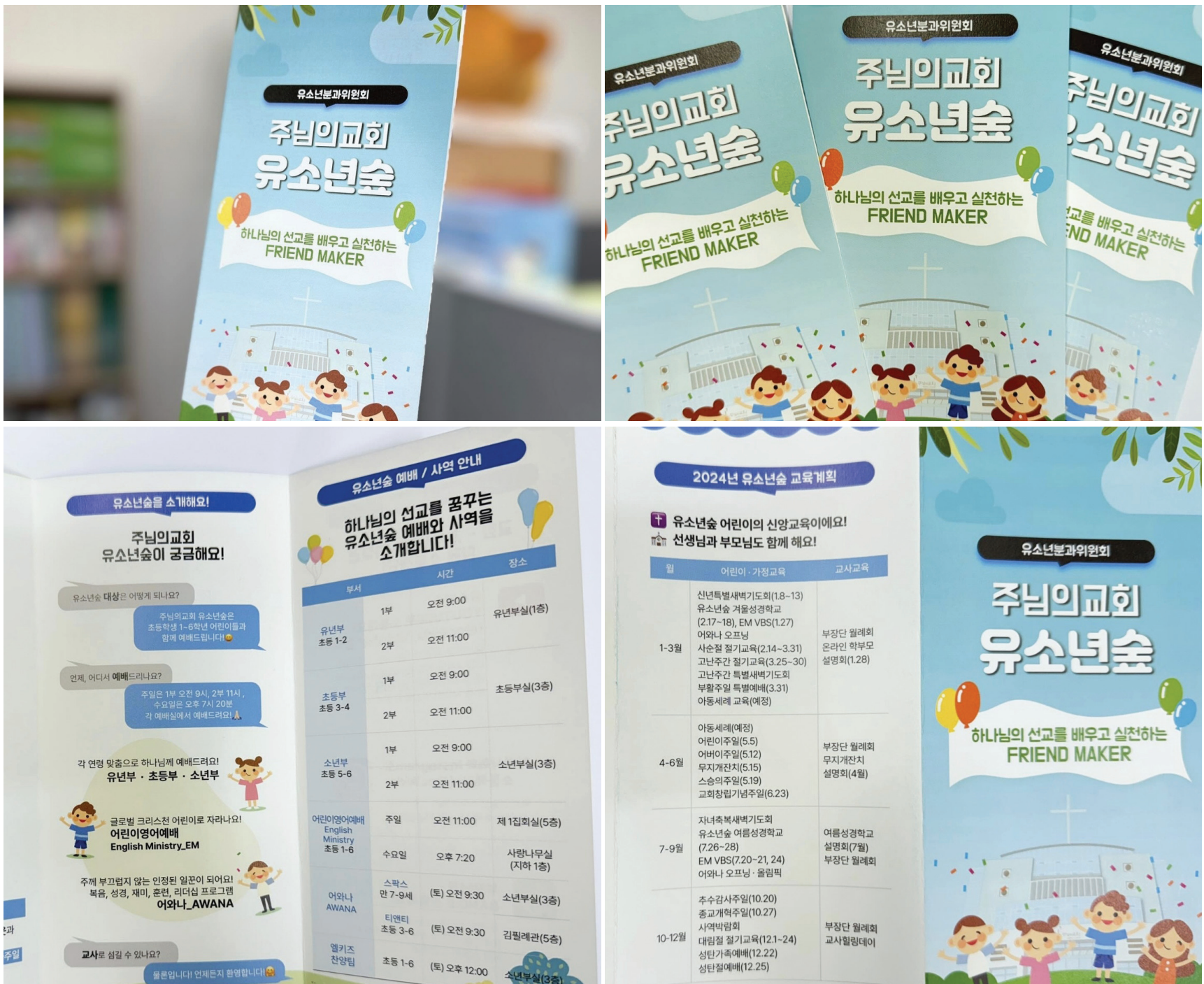
함글함글

유소년숲

유소년숲을 소개합니다

2024년 유소년숲 리플릿이 나왔습니다. 2024년 유소년숲의 교육비전과 교육계획, 각 부서 예배 시간 및 장소 안내, 유튜브/인스타그램/밴드 사역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각 가정 및 전도용으로 사용해주세요. 사역박람회(11.19.) 1층 로비 유소년숲 부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소년숲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잠언 편

이번 호에는 <잠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잠언>은 보통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를 알려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箴言)'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4호 시편 편 정답



가로 힌트

1.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 "○○○○ ○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 3:35)
3. 매우 어리석고 둔한 사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 ○는 멸망하느니라" (잠 10:1)
5. 어느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잠 14:18)
6. 의로운 자가 걷거나 가야하는 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 ○을 지키게 하리니" (잠 2:20)
9. 사람마다, 또는 저마다. "많은 사람이 ○○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 20:6)
11.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들이 많음. "○○ ○○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잠 5:14)
12.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왕. 잠언에서는 솔로몬을 가리킨다. "다윗의 아들 ○○○○ ○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 1:1)
14.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어 걱정하는 것.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 17:25)
16. 문틀에 끼워서 여닫는 문의 한 짝. "○○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 26:14)
17. 수면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먼 바다. "그의 지식으로 ○○ ○○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 3:20)
19. 독한 술. "○○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 31:6)
21. 만나기 어려운 귀한 사람. <함줄함울>에 연재하는 '성경 십자말 풀이'를 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런 사람에 속한다.
22.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 14:15)

세로 힌트

1. 성경, 특히 잠언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2. 본인 자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 8:36)
4. 여러 개로 작게 나뉜 것 중의 하나. "마른 떡 ○ ○○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 17:1)
7. 기대고 의지할 만한 존재. "대저 여호와는 네가 ○○○ ○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 3:26)
8. 솔로몬 왕 어렸을 때의 애칭이라고 알려진 이름. "○○○ ○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 31:1)
10. 즐거워하고 기꺼워함.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을 받느니라" (잠 12:22)
13. 무덤이나 땅 밑 세계의 아주 낮은 곳.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 ○○ ○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 9:18)
15. 성문 근처, 또는 성문 앞.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 ○○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잠 1:21)
18. 무조건적이며 특별한 사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 14:35)
20. 국가의 주권을 가진 최고 통치자. "○○○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 29:26)

제4회

함	즐	함	울				
신	춘	문	예		공	모	

공모 부문

- 시 | 3편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접수 마감

2023.12.15(금) 24:00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4년 함즐함을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보낼 곳

- pclhamletter@naver.com
-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에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아래에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각 부문 별 최소 응모 편수 이상을 보내주셔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함즐함울에서 제4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세상은 선악을 쉽게 가릴 수 없는 힘과 힘의 대결로 가득합니다. 매일같이 전쟁과 폐허, 고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생명 사랑과 평화라는 주님 뜻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삶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유는 언어로 이루어지며, 언어로 전달됩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신 계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주님의교회

교회일정

11/29(수)	겨자씨인도자 교육 2학기 종강
12/3(주일)	대림절

알립니다

1. 2023년 사역박람회

당신이 일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시 : 11/19(주일) 오전 8:00 ~ 오후 2:30 로비(1층)
문의 : 김지수 권사(010.2324.2502)

2. 남녀선교회 연합회 주관 사랑의 헌혈행사

일정 : 11/19(주일) 오전 9:00 ~ 오후 4:00
장소 : 교회 로비 앞 주차장(헌혈 버스)
기타 : 헌혈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우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행사도 있습니다.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헌혈은 사랑입니다

- 일정 | 2023.11.19 (주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소 | 본당 앞 적십자사 헌혈버스
- 대상 | 주님의교회 전교인
헌혈 가능나이 : 만 16 ~ 69 (헌혈), 세부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 기타
신분증 지참하셔야 헌혈참여 가능(사진불가)
헌혈 할 수 없는 경우
 - 치료목적 약물 복용(간/신장/심장/폐 등) : 직원에게 문의
 - 치과치료, 침술, 부항, 3일 미경과자 : 직원에게 문의
 - 눈썹 문신 6개월, 귀통을 1개월 미경과자
 - 해위여혈, 내시경, 1개월 미경과자
 - 말라리아 제한지역 숙박 및 거주자, 파주, 연천군, 철원, 강릉군

교우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행사도 있습니다.

주관 | 주님의교회 남여선교회 (주관담당 : 제라선교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Jesus gave us everything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

· 2023 ·

11.19 (주일)
8AM ~ 2:20PM
1층 로비

이벤트도 주수할 것은 많고
왕관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참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히라
누가복음 10:2

